



행복한 가정운동의 國內外動向

가톨릭의과대학 교수

한국행복한가정운동협의회

회 장 조 규 상

현재 人口問題는 世界的인 課題로서 한국에서도 家族計劃은 重要한 國家施策의 하나로 되어 있다.

여러 國家들에서 그러듯이 韓國에서도 모든 有効한 家族計劃方法들을 導入하여 實施하고 있고 人工流産 또한 條件付로서 許容하고 있다.

現在 韓國에서는 年間 約 100만명의 婦人이 避妊을 그리고 30만명이 人工流産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實際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數로 생각된다.

家族計劃이 普遍化 됨에 따라 物質萬能과 頹廢的인 現代思想들은 眞正한 夫婦의 사랑과 幸福한 家庭生活에 큰 威脅을 주어 信仰生活을 파탄으로 몰아 넣고 있다.

1972年 韓國主敎會議에서는 人工流産과 避妊에 關하여 特別한 關心을 表明, 韓國가톨릭 病院協會로 하여금 自然周期法을 利用한 家族計劃의 方法을 研究하도록 指示하여 이에 神學, 醫學, 社會學의 專門家 9名으로 構成된 “행복한가족”연구위원회가 出發되었다.

한국 주교회의 승인을 받은 본위원회는 敎育 訓練, 指導啓蒙, 調查研究등 全國的인 事業을 위하여 3個年計劃(\$108,000)을 세우고 FPIA, PC, Misereor, HLF등 여러 外國機關에 援助를 要請하였다.

本委員會의 外援要請한 3個年計劃은 非信者를 包含한 50萬쌍의 夫婦에게 自然法에 의한 家族計劃方法을 敎育할 目標을 세워 第1次年度에는 우선 3,000名의 聖職者와 修道者를 講習하고 第2次와 3次年度에는 4,500名의 各本堂과 團體의 要員을 訓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간 본위원회는 가톨릭여성연합회를 위시하여 여러지역에서 강연회를 가졌고, 가톨릭병원 협회에서도 수차례 거쳐 人口問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었으며 落胎不妊手術禁止에 대한 對政府建議案을 낸 바도 있었다.

1965年 호주의 빌링스博士는 排卵을 診斷하기 위한 粘液觀察方法을 開發, 이를 發表하여 自然法에 의한 家族計劃事業에 큰 轉機를 가져오게 하였다. 韓國에서도 골룸만 病院修女들이 直接 이를 배워와 1970년부터 木浦와 春川地區를 中心으로 初期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克服하고 이 事業을 展開하여 왔다.

한편 가나다의 판토티教授는 20個國에 대한 自然家族計劃活動事業의 資料를 調查하여 오던 中 1974年 8月 世界 人口의 해를 맞이하여 루마니아의 부가레스트에서 UN主權下에 人口會議가 열리는 것을 契機로 이에 1週 앞선 8月 8일부터 12일까지 5日間 가정생활증진 국제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Family Life Promotion) 創立을 위한 準備總會가 美國 와싱턴에서 開催되었다.

美國의 HLF 가나다의 CF 및 西獨 Misereor의 도움으로서 열린 本會는 韓國을 包含한 13個國에서 25名의 代表가 參席, 創立趣旨文과 경관의 草案 그리고 準備委員(호주, 가나다, 미국을 選출한 후 부가레스트에서 열리는 世界 人口會議에 代表派遣(Msgr, McHgh의 8名)과 가톨릭 代表의 役割에 대한 討議를 가졌다.

그후 IFFLP는 1975年 4月 3일부터 4日間 排卵法을 中心으로 한 人間生殖에 관한 國際심포지움을 NIH, USAID, FPIA, WHO등 여러기관

의 參席下에 보스톤에서 開催하였는데 여기서는 排卵의 調節, 排卵의 豫測, 精子의 壽命 등이 醫學的 社會學的인 여러面에서 다루어졌다.

이 심포지움은 그후 自然法에 의한 家族計劃을 WHO에서 政策으로 研究開發하도록 決定한 重要動機가 되었다.

今年(1976年)에 들어와 IFFLP는 美國 로스안젤스에서 周期法에 의한 家族計劃의 세미나를 가졌는데, 골룸반병원 修女들이 이에 參加하였다.

한편 WHO는 2月 9일부터 3日間 自然法에 의한 家族計劃의 專門委員會를 召集하였다. 排卵期의 判定方法을 主題로 한 本會議에는 빌링스博士를 위시하여 15個國의 專門家와 WHO 本部의 3名의 專門家가 參席하여 人間 생식의 연구 개발을 위한 WHO計劃, 排卵期의 診斷方法, 本研究開發을 위한 課題의 順位決定 등이 討論되었다.

生物學的, 技術的, 實質的, 여러面에 걸쳐 自然家族計劃方法의 研究開發을 위한 37個提案이 나왔는데 이中에서 우선 順位로서 採擇한 5가지 題目은 다음과 같다.

1. 自然家族計劃法을 要求, 選擇, 實施하는데 影響을 주는 社會的, 心理的, 文化的, 教育的, 諸因子
2. 周期法이 結婚生活에 주는 心理的, 社會的 評價
3. 自然家族計劃方法의 教育內容과 方法
4. 排卵診斷을 위한 기초체온, 임상증상, 糞便 등의 相互關係
5. 授乳期, 更年期, 經口避妊法使用後 등에 있어서의 自然家族計劃方法의 利用

WHO에서는 現在 이 分野의 發展을 위하여 各國에 教科課程과 調查研究에 관한 資料를 蒐集하고 있다.

1975年 3月 春季 韓國主敎會에서는 春川 朴토마 主敎를 主敎會의 가정사목담당 主敎로 任命하였다. 이를 契機로 그동안 한국 가톨릭 病院協會內에 設置된 행복한 가족연구위원회 事業과 春川, 木浦 등에서 實施하여 온 NEP 事業을 統合하고 家庭의 聖化運動을 全國적으로 展開하고자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협의회를 창립하였다.

14個敎區代表와 機關代表 約 40名이 모인 本協會는 1975年 5月 28日 創立 總會를 갖고 朴主敎를 總裁主敎로 추대하고 정관을 통과시킨후 회장, 부회장과 사목 의학 제정의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1975年 8月 12日에는 第1次總會를 開催하였다.

本協會는 自然家族計劃方法과 家庭聖化를 위한 活動團體로서 各本堂을 中心으로 한 本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敎區에는 敎區委員會가 그리고 全國에는 全國協議會가 있다. 가톨릭病院協會는 全國協議會의 構成으로서 會員病院들은 各所屬敎區의 事業活動을 支援하게 된다.

本協會의 事業을 위하여 朴主敎는 \$92,000의 外援을 要請하였던 바 1975年 12月 교황청으로부터 \$25,000를 그리고 골룸반회로부터 \$10,000 함께 \$35,000을 받아 1976年 1月 22日 全國協議會를 召集 今年度事業으로 各敎區에 \$2,000 그리고 本部事業에 \$7,000를 支援하도록 配定하였다. 현재까지 집계된 수치를 보면 自然家族計劃의 教育을 받은 數는 4萬名이 넘으며, 要員의 教育은 200名에 達하고 있다. 이런 사업은 가톨릭病院協會 會員病院에 設置된 가족계획 클리닉이 中心이 되고 있다.

今年度に 있어 本事業은 劃期的으로 發展되어 나갈 것으로 期待된다.

參考로 各敎區의 指導神父와 가족계획클리닉이 設置된 會員病院名單을 紹介한다.

한편 1975年 12月 29日 교황청 신앙교리성성에서는 性倫理上의 特定問題에 관한 宣言이 나왔고 1976年 2月 15日에는 家族計劃에 있어 빌링스氏의 排卵周期法을 公認한바 있다.

IFFLP의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22個國의 加入申請을 받아 1977年 3日 印度의 뉴델리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할 豫定이며, 本會를 위하여는 CIDA, WHO, LCWR 등 여러 機關에서 15萬\$의 援助가 確保되어 있다. 한편 本會에 앞서 今年 11月 香港에서 每年마다 열리는 아세아가톨릭의료인 협회에서는 自然法에 의한 家族計劃事業을 主題로 다루게 되어 있다.

家族計劃으로서의 周期法의 發見은 그 歷史가 오래이면서도 그간 醫學的인 發展을 거두지 못

하여 오다가 最近宗教面이나 倫理面의 높은 次元下에 다시금 醫學的으로 새로히 開發되고 있는 慶賀스러운 일이다. 우리 가톨릭病院協會會員病院들이 하여야 할 本事業은 人口調節보다도 높은 倫理的 次元에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총 재 : 박 토 마 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담당주교, 춘천교구장)
 회 장 : 조 규 상 교수(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
 부 회 장 : 김 예 랑 (가톨릭여성 연합회)

지도신부(전국대표 위원)

서울대교구 : 김 창 렬(바오로)신부 (가톨릭 중앙의료원장)
 춘천교구 : 송 창 식(토 마)신부 (효자동 천주교회)
 대전교구 : 김 동 역(바오로)신부 (가톨릭 문화회관)
 인천교구 : 설 요 한 신부 (부평 2동 천주교회)
 수원교구 : 변 기 영(베드로)신부 (수원교구청)
 원주교구 : 양 대 석(알로이시오)신부 (원주교구청)
 대구대교구 : 장 태 식(리노)신부 (대구교구청)
 왜관대리구 : 서 상 우(요한)신부 (신동천주교회)
 부산교구 : 길 야 고 보 신부 (서동천주교회)
 청주교구 : 이 한 구(라우렌시오)신부 (서운동천주교회)
 마산교구 : 이 종 찬(발드로메오)신부 (마산교구청)
 안동교구 : 이 길 준(바오로)신부 (봉화천주교회)
 광주대교구 : 박 상 수(꼬스마)신부 (남동천주교회)
 전주교구 : 범 석 규(마디아)신부 (전주교구청)
 제주교구 : 매 신부 (서귀포천주교회)

가톨릭 가족계획 클리닉

서울성모병원 가족계획클리닉
 대구파티마병원 //
 목포성골롬반병원 //
 춘천성골롬반병원 //
 대전성모병원 //